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3월 1일(금)

(음력 1월 25일)

Пятница

1 марта 2019г.

№ 8(11682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코르사코브시에서 <올해의 선행인>경연대회 우승자 이름을 발표했다.
<인정>부문에서는 <스트로이마켓>유한회사(사장 오정태), <자비>부문에서는 지방사회단체인 코르사코브 로타리 클럽(회장 올라 쉬모르군), <배려>부문에서는 개인기업가 알렉산드르 도로센코가 우승했다.
▲ <스트로이마켓>회사 오정태 사장(왼쪽)과 코르사코브시장 찌무르 마긴스키. (코르사코브 시청 제공)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2월 27과 28일 양일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국내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은 회담에서는 6월12일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의제를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풀어가며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2차 회담판의 최대 과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각 항목의 정신을 구체적 이행 로드맵으로 옮겨내는 '하노이 선언'을 도출해 내는 것이었다. 28일에 오전에 단독회담과 이어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확대회담장에서 취재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채 오찬도 취소하고 양측은 협상장을 떠나야 했다.

이후 성명서 발표도 취소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에 따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는 불가역적 핵폐기를 요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는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했다. "북측은 영변 핵시설 해체 이상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의 추가 비핵화 요구와 비공개 고농축 우라늄 해체 요구가 반



심각한 표정의 북미정상 (EPA·AP·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날인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아들여지지 않아 제재완화를 거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 평양이 큰 규모의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히고 "북한과 논의로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수 주 내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정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장 -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영변 핵시설 폐기. 최우선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요구.
미국 입장 - 영변 핵시설 폐기와 추가 비핵화의 가시적 실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영변 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 신고. 완전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함.

(인터넷 기사 종합)

사할린주, 재정 부족으로 건설 분야 축소

사할린주 건설부 간부 회의에 주정부 세르게이 올론체프 부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대표자들과 공동으로 2019년 계획과 건설 분야의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건설부 타치아나 네우스트로예와 장관 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주내에서 26만 5000m²의 주택이 건설되었다고 보고했다. 대다수(10만4000m²)는 주민들의 개인 비용으로 건설되었고 상업적 건물 공사는 7만4000m²에 달했으며 임대아파트 4만4000m², 공공 및 임대주택은 4만1000m²에 해당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9만5000m²(총수의 59%)의 주택을 건설했다. 오하구역에서는 1만1000m², 유즈노쿠릴스크구역에는 8000 m², 트롭스코예구역과 포로나이스크구역에서는 각각 7000 m² 건설했다.

2018년 건설량은 2017년에 비해 8만 3000 m² 더 적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당면 노후 및 붕괴 주택 프로그램 단계가 마무리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금조달 부족으로 새 주택 건설이 종료된 데 있다. 건설 분야에 지출액은 2018년에 420억 루블리, 2017년에는 660억 루블리, 2016년에는 860억 루블리이다.

2019년에는 주택 35만m²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단신

사할린주, 월드스킬스 지역단계 개최

3월 1일부터 5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Worldskills(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지역단계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47개 전문 분야에서 사할린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268명의 젊은이가 경쟁하게 된다. 여기에 235명의 감정전문가들이 심사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외에 사업프로그램 일환으로 원탁 모임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실용 및 기획 세미나와 다양한 활동교실이 진행된다.

쿠릴섬 주민들, 고속 인터넷 접속

지난 2월 26일(화) 쿠릴열도 쉬코탄 섬에서 해저 통신 광케이블 포설 준공식이 있었다. 마침내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쿠릴스크(이투루프 섬), 유즈노쿠릴스크(쿠나쉬르 섬), 크라보사위드스코예 및 말로쿠릴스코예 마을(쉬코탄 섬)들과 광케이블로 연결되었다.

"쿠릴열도에 광케이블 포설로 주민들의 문서 작성에서부터 타지 의료진과의 상담, 학생들은 전국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친지들과의 교류로 쿠릴열도는 새로이 도약할 거라 전망한다."고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이 언급했다. 지진 및 해일 위험지역에 해저 통신 광케이블 포설작업을 <로스텔레콤>회사가 맡아 시행한 가운데 쿠릴의 주민들과 기관, 업체 등이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TV, 감시카메라, 디지털 주택 등 무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다.

준공식에는 환경보호·생태학·교통문제 담당 대통령 특별 대표 세르게이 이와노브, 주지사 대행 발레리 리마렌코, 러시아연방 디지털개발·통신·대중통신부 콘스탄틴 노스코브 장관, <로스텔레콤>회사 미하일 오세옴스키 회장이 참석했다.

사할린, 철로 교체의 주요단계 가을까지 완료

사할린주 발레리 리마렌코지사 권한 대행이 <러시아철도>주식회사 올레그 벨로조로브 대표이사를 만나 사할린의 철도 제반시설 개건과 새 철도차량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일제시대 때 건설된 폭이 좁은 철로를 전국 표준으로 바꾸기 위해 약 700km² 철로를 교체해야 하는 작업은 6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승객, 화물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된다. 새로운 철도로 홈스크-아르센찌예카 구간, 코르사코브-아르센찌예카-노글리키 구간 통행은 9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은 철로 교체는 중요한 사회적 기획의 하나로 주민 운송 향상과 화물운송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2월 19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새 소장으로 박기동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부총영사가 부임했다. 본지 독자들에게 신임 소장을 소개하기 위해 본사 배순신 기자는 박기동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했다.

- 우선 사할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장님의 원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줄곧 부산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공은 공무원이나 현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라 편견이 생길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언제, 어떤 이유로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 저희가 어릴 때는 외국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넓은 세상을 한 번 보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9년에 공채시험을 거쳐 1990년에 당시 외무부에 입부하였습니다.

- 소장님의 프로필 보니 일본에서도 근무하셨고 남아메리카 등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 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 중남미는 사람들의 손이 덜 탄 천연의 자연과 여유가 있는 문화, 일본의 꼼꼼한 업무처리와 아기자기한 공예품 등,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종이나 문화, 역사가 달라도 다 같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최근 3년은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 계시다가 이곳으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낯설지는 않으시겠네요? 사할린에 오신 소감은 어떤가요?

- 블라디보스톡 근무시절에 사할린에 2번 출장으로 와 보았습니다. 와 보기 전에는 20년 전 사할린을 방문한 사람의 짧은 여행 소감을 읽은 기억을 통해 조금 낯익은 곳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을 할 작정

유즈노사할린스크주재 대한민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신임 소장과의 인터뷰



▲ 러시아 외무성 사할린 대표 블라지미르 노소브(왼쪽)와 박기동 소장.

예상외로 현대적이고 정비된 도시 모습과 활력을 보고 약간 놀랐으며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왜 사할린을 마지막 부임지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 블라디보스톡에 근무하면서 러시아의 매력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사할린 출장소장 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사할린의 역사나 동포문제 현안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외교관으로서 사할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나 업무계획이 있으신지요?

- 사할린은 한민족 현대사에서 가슴

아픈 현장이며 국가가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현장 최일선에 있는 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할린은 한국과 많은 협력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 사할린에 오시자마자 민주평통 유령지역회의가 개최한 3.1절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 3.1절 행사 100주년 행사가 사할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컸습니다. 굴곡되고 힘든 우리 민족의 과거사가 기억에 떠오르는 한편, 성대하고 화려하게 기념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 민족의 힘과 역량을 느낄 수 있어 마음 환란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우리 사할린 동포들의 역량을 잘 활용하여 한국과 사할린의 협력을 다방면에서 증진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반 가족은 있으신지요?

- 처와 함께 부임하였으며 아들과 딸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 여가시간에는 보통 어떤 취미를 즐기십니까?

- 산보나 등산을 좋아하는데 사할린은 낯선 환경이 좋다 하니 낚시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인생의 책, 또는 영화, 혹은 음악이 있으신가요?

-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때 읽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와 도산 안창호 선생 일대기가 저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저

를 공직의 길로 이끌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 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격언 또는 좌우명이 있으신지요?

- 서산 대사의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에는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시구를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선배보다 후배가 훨씬 많고 사회생활 출발을 앞둔 자녀가 있는 나이인지라 모범이 되는 행동, 후대가 활용할 자산이 되는 실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항상 저 자신을 자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사할린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은 법과 제도, 예산의 제약과 첩첩이 쌓인 행정조직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과감한 발상이나 대담한 업무추진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가능한 것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950~60년대에 사할린 동포 분들이 조국으로 귀국을 위해 낯으로 고민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실 때 어떤 공무원도 동포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조금 더 창의적,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합니다. 동포 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모저모

섬지역 여성들 <힘내라(파이팅), 사할린 여성들이여!>경연에서 매력을 발휘

3월 10일 <포베다> 종합기념박물관의 하나인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이 국제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힘내라, 사할린 여성들이여!>경연을 개최한다.

여기에 18세에서 35세까지의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다. 교육과 활동 분야는 상관없다.

경연대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여성의 매력을 발산하고, 지성을 드러내고, 주부로서 능력을 보이며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진정 매력적인 여성은 능력에서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의 전화: 49-57-28.

지원 신청서는 이메일 v.petrulina@sakhalin.gov.ru로 3월 7일까지 보내야 하고 양케트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관리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종합박물관 측이 전했다.

Островитян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обаяние на конкурсе "А ну-ка, сахалинки!"

10 марта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 "А ну-ка, сахалинки!",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В нем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лод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рекрасной половины человечества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5 лет. Образование и сфера деятельности значения не имеют.

В конкурсе главное — показать женское очарование, сразить интеллек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мение быть хозяйкой, блеснуть свои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и та-

лантами, доказав, что подлинно обаятельная женщина обладает не только умениями, но и чувством юмора.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9-57-28.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следует направлять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v.petrulina@sakhalin.gov.ru до 7 марта. Также анкету можно заполнить на стой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ообщив в музейном комплексе.

사할린통계국, 사람들이 사할린으로 이주하는 이유와 대륙으로 떠나는 이유를 밝혀냈다

사할린통계국이 2018년 총결산을 내며 한 해 동안 약 2만4000명이 사할린으로 이주해왔으며 그중 절반 정도인 1만3000명이 영구 이주했다고 밝히고, 같은 수의 사할린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대륙으로 떠났다고 했다.

대부분 사할린 이주자의 연령은 14세 이상이며 전체 이주자의 1/3로 사할린에 취업을 목적으로 왔고, 1/4은 개인적, 가정적 이유로 이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630명으로 약 2.6% 정도이다. 아직 64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국제관계의 긴장 상태를 피해 여기서 안전을 찾고 있다. 주로 러시아 국민들이 사할린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주민 중에 전체 84.3%에 해당하는 4천 명은 CIS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이다. 이들 중 절반은 취업을 목적으로 온 키르기즈인이고 우크라이나인은 473명에 불과하다.

이주자 절반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정착하고, 10%는 코르사코프에, 5%는 쿠릴지역으로 가고, 4%는 홈스크, 포로나이스크, 아니와 도시에 정착한다.

이 시기에 사할린을 찾아온 이주자 수만큼 사할린 주민들이 사할린을 떠났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났고, 남부 지역과 따뜻한 크라스노다르 지역으

로 옮겨갔다. 또는 가까운 극동지역인 하바롭스크와 프리모리예변경으로 떠났다. 사할린 주민들은 25.8%가 개인적인 이유로 가장 많이 떠났고, 취업 목적으로 10%, 교육 목적으로 7.6%가 떠났다.

Сахалинстат выяснил, зачем люди переезжают на острова и уезжают на материк

Сахалинстат подвел итоги 2018 года и выяснил, что за это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 переехали 2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ричем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 13 тысяч — перебрались навсегда.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островитян уехали искать лучшей жизни на материк.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езжих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лет и старше — а это треть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 пояснили, что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работать. Еще четверть перебрались в регион по личным и семейным причинам. Тех, кто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совсем немного — около 2,6 процента, это примерно 630 человек. Еще 64 человека ищут здесь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пасаются от обостр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усско-украи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основном переезжают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приезжих только 4 тысяч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чем большинство — 84,3 процента — переехали из стран СНГ.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из них — киргизы,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чтобы найти работу. А вот украинцев очень мало, всего 473 человека.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приезжих оседа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коло десяти процентов едут в Корсаков, пять процентов — сразу же летят на Курилы, еще по 4 процента приезжих выбирают Холм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и Анив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Уехали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этот период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человек, сколько и приехали. Они выбирали для новой жизни либо столицы — Москву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либо двигались на юг, в тепло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либо переезжали в близлежащ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 Хабаровский 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я. Сахалинцы чаще всего уезжали по 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 25,8 процента, работать уехали всего 10 процентов, еще 7,6 процента поехал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учиться.

(8면에 계속)

20년을 어제처럼, 늘 그렇게 한 걸음 나가겠다는 'KIN'

2019년 2월 27일 한국 민간 단체인 KIN (지구촌동포연대)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새고려신문사는 사할린 한인들을 포함해 그동안 동포들을 위한 중요 사회사업을 벌여 온 지구촌동포연대 활동가들에게 창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래에 KIN의 20년간의 사업을 소개한다.

■ 재외동포교류사업, 서로에게 한 걸음 더 (1999~2003년)

1999~2003년까지 KEEP (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 재미동포 한국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01~2003년까지 재일조선인 초청 및 청년 결연사업과 일본 현지 동포사회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캠페인(2000년~2012년)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 캠페인과 함께 이후 2000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평등 개정 및 재외동포 불법체류 전면 합법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 재외동포NGO대회(2004년~2012년)

2004년부터 <재외동포NGO대회>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현실을 조망하고, 한국사회와 동포사회의 실질적 연대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빼앗지 말아요 우리학교!> 에다가와조선 학교 지원(2005~2009년)

이시하라 도코 도정과 맞서 싸우고 있는 에다가와조선학교 문제 대책회의와, <함께가요 우리학교, 에다가와조선학교 지원모금>을 조직하여 에다가와조선학교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 재외동포영화제(2005~2008년)

2005년 <朝鮮 . COREA . KOREA 소통하다!> 라는 주제로 매년 실시해온 재외동포영화제는 700만 재외동포와 한반도의 100만 이주민이 영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 조선적 재일동포 캠페인(1999년~)

일본 식민지배의 상징이자, 남북 분단의 아픈 상처기이기도 한 조선적 재일동포. 그간 거리 캠페인, 영화 '항로' 공동 상영 등으로 조선적 재일동포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여행증명서 발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과 함께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 (2009~2013)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정영환교수의 입국 불허를 계기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실현을 위한 모임"에 참가하면서 2017년 정책제안서를 새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우토로 살리기 운동(2005년~)

2005년 우토로 마을 실태조사 후 긴급성명발표를 시작으로 <우토로 국제대책회의> (2005~2012)를 조직하여 '역사청산!', '거주권보장!'을 슬로건으로 우토로 살리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2007년 한국 정부의 토지매입 지원 결정으로 한국 정부지원금과 민간모금의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일본 정부가 시영주택을 짓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우토로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을 조직하여 우토로 마을 현지에 "우토로 평화기념관"건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할린 희망캠페인(2005년~)

사할린 특별법 제정 움직임 속에 2006년 이래로 매년 사할린을 방문하여 현지 실태조사와 역사보존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사할린 역사기념관 건립을 목적으로 <사할린 희망캠페인단>(2009~2014)을 조직하여 국회 공익로비활동, 다양한 현지 교류활동을 벌여왔고, 2013년부터는 사할린 동포를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처: 지구촌동포연대)

영화 '귀향(:鬼(귀신 귀) 郷(고향 향)) '나는 죽으면 나비가 될거. 너 집 갈 때 나가 앞장서 갈텐게 너는 나만 따라와.'

2월 22일(금) 17시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영화 '귀향'이 상영되었다.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사할린을 방문한 박신민 민주평통자문 위원(미국 달라스)이 이 영화를 사할린 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져와 상영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사시기에 영화상영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개봉된 영화 '귀향'은 일제시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징용된 소녀들의 처참했던 삶과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슬픈 혼을 주제로 하고 있다.



니는 정민이 친구에게서 뺏은 노리개를 보고 남의 물건을 장난으로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뺏긴 사람은 마음이 어떨할지 생각하라며 회초리를 들어 정민의 종아리를 친다. 이것이 한국 어머니의 가르침이다. 시절이 흥흥한지라 어머니는 정민에게 액(나쁜 운수)을 막을 괴불노리개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일본군이 집으로 찾아와 황국신민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정민을 데리고 간다. 어머니는 정민에게 말한다. "'어디에 있든지 거창 땅 한테기골로 데려다 주세요' 해라."라며 씌지돈을 쥐어준다. 끌려가는 딸을 부모는 눈물로 보낸다. 일본군은 마을의 10대 소녀들을 이런 식으로 트럭에 태워 먼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소녀들이 당한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에서는 은경이 등장하고 은경의 가정애 강도와 성폭행, 아버지가 강도에게 살해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어쨌든 이후 실어증에 걸린 은경은 어머니의 인도로 무속인에게 맡겨진다. 한편 정민은 동무들과 멀고 먼 길을 지나 중국 길림 목단강에 도착한다. 어린 소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디로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 묻지 않는다. 발거벗겨져 성병 검사를 받고 '황국 군인에게 바치는 몸'으로서 위안소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녀들의 비명소리와 매맞는 소리가 정민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화장실 같은 방들에 갇혀 정민과 동무들은 일본군이 자행하는 참혹한 성적 폭행을 당한다. 소녀들의 얼굴은 피에 젖고, 명으로 부어 있고, 다리는 하혈로 붉다. 일본군은 말한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황군을 위한 암캐다."라고. 독일 나찌의 홀로코스트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다.

병들고 쓸모없어진 소녀들을 나란히 세우고는 구멍이를 파놓고 총을 쏜 후 구멍이의 시신들을 불사르는 장면이다. 살아남은 정민이 친구 영옥에게 말한다. "나는 죽으면 나비가 될거. 너 집 갈 때 나가 앞장서 갈텐게 너는 나만 따라와." 정민과 영옥, 2명 더한 친구들은 위안소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일본군에 발각돼 두 친구가 총에 맞고 쓰러진다. 다행히 정민과 영옥은 탈출에 성공한 듯하지만 잔악한 일본군의 추적으로 정민이 총에 맞아 쓰러진다. 마침 독립군이 나타나 영옥을 구하지만 영옥은 쓰러진 정민을 두고 발걸이 떨어지지 않는다.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영옥이 울부짖는다. 이제 영옥은 할머니가 되었다. 평생 홀로 살며 가슴에 어린 시절의 참혹한 고통과 친구 정민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담고 살다가 무속인 은경을 통해 고향을 떠도는 정민의 혼을 만난다. 고향 서낭당 나무 아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타지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위안부 소녀들이 나비가 되어 고향을 향해 힘차게 날개를 치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

영화는 참혹하고 고통스런 추억을



이채인, 사할린동포 2세
이 영화에 보여준 '귀향'은 누구에게 생긴 사실이 아니고 나의 누나, 나의 동생, 나의 손녀와 같은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일이다. 그래서 아픔과 부끄럼을 이기지 못해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가 없었다. 오늘에 와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귀향"같은 일이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방어하고 있는지?

서정적으로 그려냈다.

역사적 사실이 반인륜적이고 충격적이어도 사실을 표현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져서 국민이 노예처럼 해외로 끌려가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제대로 항거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찾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화를 제작한 조정래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 집>에서 봉사를 하던 중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와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처녀들: 위안부들이 구덩이에 던져져 일본군에게 불태워지는 그림>을 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당시 위안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남부 사할린에도10곳, 총 400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1942년 9월 3일 일본 육군성 과장회의 보고에 적혀있다고 '뉴스타파'가 심층탐사방송에서 보도했다.

상영 후 박신민 씨는 과거 위안소가 있었던 곳을 확인하는 일이 과제라며 어렵지만 위안부로 살았던 일을 밝히는 데 동참해주길 요청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나비문양의 엽서를 받은 참석자들에게 할머니들에게 전해줄 안부 편지를 쓰도록 부탁하며 기념품으로 미국에서 준비한 나비 팔찌를 참석자들에게 선사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말하길 '사디즘(sadism)의 공통된 핵심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끝없는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정열'이라고 말한다. 사디스트(sadist가학적 성애자)는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과 흐르는 피와 성적인 욕망으로 흥분하는데 대상은 힘이 없는 존재, 동물, 포로, 노예, 패배한 적, 어린이, 여성, 병자(특히 정신병자), 죄수, 무기가 없는 약자가 육체적 학대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했다. 군대 권력 속에 숨었던 사디즘(sadism)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불구로 만들고, 질식시켜 그 성장을 막아버렸다. 사디즘은 한 시대에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사디즘을 배경하고 처벌하는 현대에까지 조용히 인간 안에 숨어 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머리를 들고 말할 것이다. "나 사디즘은 절대 악행을 한 적이 없다."고.

(글/박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ё ильбо: В истории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1919 года занимает особое место. Понимая значимость данного события, а также в связи с его 100-летием, в данной публикации предлагаются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а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Ге Бон У, автора книги «Сон во сне» (1940–1943 гг.). Книга изда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Кимом Филом, профессором казахстановедения, доктором филолог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г. Каннам (Корея) в 2009 году.

Из книги «Сон во сне»:

... — Папа, если вы жили в Ёнгхынге, значит, знали о том, что борьб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ачнется? — спросила Хуарим.

— Знал? Знать знал, и видел, как готовились борцы. За год до начала в декабре я искал моего товарища Ган Гичана, в Тангыльбу в городе Догун, и встретил студента техникума Посонг Ганг Гидока. Видел всю тайную подготовку, знал, как начнется эта борьба и какой взрыв будет в стране.

— Папа, во время всего происходившего вы находились в Ёнгхынге? — спросила Чебонг.

— Как это в Ёнгхынге? Когда прошел слух о похоронах императора Гуангму,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состояться 3 марта, зная, что начнется движени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я искал повода для поездки в Сеул. Совесть мне не позволяла делать этого, 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тправиться в Сеул, я решил поступить в Пхеньянскую семинарию. Это решение оказалось удачным, японцы ничего не могли сказат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скоре я поехал в Сеул и 27 февраля попал в гостиницу, в которой остановились студенты семинарии, около южных ворот на Боннежон, где шла подготовка к 1 марта. Время было назначено на час дня. А почему дату перенесли? Потому что японцы не сидели спокойно, именно они отравили императора и убили его. Ситуация была схожа с Версальским событием. Когда слух о смерти императора дошел до простолудинов, люди не могли больше сидеть и ждать спокойно. Гнев возрастал, и народ открыто высказывал недовольство.

В стране сложилось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пробудилась огромная волна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се это видели японцы, их шпионы, полицейские, которые не сидели, сложа руки. Они тоже подготовили новую армию на Ёнгсане, будто хотели в тор-

Воспоминания отца

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проводить в последний путь императора. Однако народ понял лживость японцев, поэтому наметил день для повсеместного движения.

Это был первый день марта. Было много студентов семинарии, тех, кто уже учился здесь, и тех, которые поступили вместе со мной, в гостинице нас было немало. День первого марта был поворотным в истории, это было началом всенародного протеста,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я знал об этом, о том, как в парке Тхабголь был зачитан стих, посвященны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глубине души я переживал и верил, что все пройдет благополучно. Я смотрел на часы, висящие на стене, и ждал часа. Я подумал: «Уже час, почему нет никаких знаков и так тихо?»

Японцы ничего не подозревали, для них движение оказалось громом среди ясного неба. По всему Сеулу раздавались крики и лозунги: «Ура, Сеул! Ура!». Я слышал, находясь в гостиниц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происходило на улице недалеко от Южных ворот. Мои ноги сами побежали в ту сторону. Я тоже встал в толпу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шли и кричали: «Свобода Кореи!». Имен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на станцию прибыл поезд, и пассажиры, как огромная волна, сходили с него, мужчины были в черных кат (шляпа), а один торговец был так воодушевлен от слов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что стал танцевать. Никто не мог запретить ему танце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в его танце была видна радость всего народа. В его танцах и движениях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и слезы, и радость,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что лежало в сердце народа, его танец просто воодушевил многих. Но когда марш двинулся дальше, пройдя мим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на дорогу, на которой находилась япо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шли от Сосомун в сторону Джонгро, японцы вышли с оружием, жандармы были на конях. Началась схватка, в процессе которой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схвачены 33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Борьб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Сеуле потерпела поражение.

— Борьба началась только в Сеуле? — спросил Хакрим.

— Как это только в Сеуле? Дату перенесли, движени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ачалось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один день, но не в одно время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Например, в городах Гесонг, Пхеньян, Джиннампо, Сончон, Ыджу, Уонсан, борьба началась в одно врем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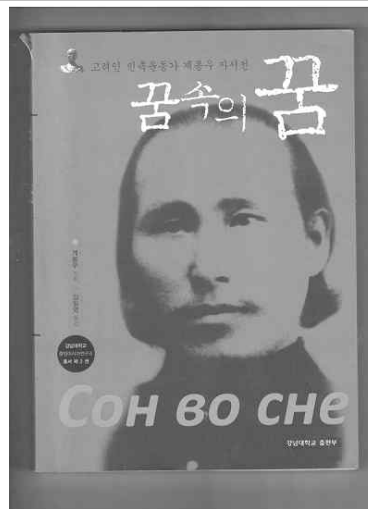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ави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движени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статистике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находилось в Шанхае. Конеч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ыло еще слабым,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оно старалось информировать людей во всех провинциях через газеты, листовки и самих людей. Я думаю, что источники более точные и правильные найти будет не так легко. Согласно источникам, с 1 марта по 27 мая люди делали бумажные флажки, выходили на улицу, проводили митинги. Демонстрации прошли в 211-ти районах, в них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1681648 человек, из них 2821 человек погибло, было ранено 25103 человека, попало под стражу 49511 человек. Откуда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и чем все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Японцы, которым присущи обман, жестокость, ложь, унижение, притеснение, подготовили армию в 30000 человек. Они вышли с саблями, а 16841 человек с железными дубинками, осталось много раненых, было много жертв, арестованных.

Японцы бесчинствовали, убивая невинных людей. Приведу несколько известных мне историй:

В районе Менгсан японцы поймали одного приверженца Чондоизма, арестовали и пытали его, говоря, что он является главарем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В участок пришли 53 человека,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его невиновность, но японцы арестовали и их, после поставили в ряд и по одному расстреляли.

В районе Джонжу, на рынке, где жители устроили демонстрацию против японцев, расстреляли не только демонстрантов, но и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в горах. Всего более 120 человек были расстреляны.

В Уонджанг в районе Дедон в одной из христианских церквей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200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тоже выкрикивали лозунг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С ними расправились жесток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сстреляли Хён Генгмыка и еще 6 человек, а многие другие были ранены. Народ не был вооружен, в руках у каждого из них был флаг, но японцы жестоко убива-



ли любого. Это была война, в которой народ утопал в море крови. Многие без оружия пробились вперед, но все были расстреляны. Было много жертв. Так среди христиан погибло в тот день 43 человека, и 20 были ранены.

Недалеко от Джуам, в районе Суон, проживали пожилые супруги, которым было по 70 лет. Когда японцы пришли в их селение в середине апреля, они схватили троих сыновей и троих внуков, связали веревками, потащили в горы и расстреляли. Но на этом японцы не остановились, они пронзили тела умерших саблями и разрубили головы, накрыли мертвых соломой и сожгли.

В Джеам, в районе Суон, тоже была христианская церковь, в которую 15 апреля пришел один старший лейтенант с солдатами и попросил собрать прихожан на собрание. В тот день в церкви собралось 32 человека. Как только люди собрались, церковь была заперта, а сами солдаты вылезли оттуда через окна. Одна женщина просила, чтобы забрали ее ребенка, даже если она умрет. Мать ребенка умоляла забрать его, один из солдат схватил ребенка и вонзил в его спину саблю в глаза у матери.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кто находился в тот день внутри церкви, погибли. Японцы сожгли их. Жена человека по фамилии Кан от сильного испуга накрылась одеялом, чтобы не видеть пламени, ее и двоих детей японцы там же расстреляли.

В церкви погибло 22 человека, а на улице еще 6 человек. Насилие японцев на этом не закончилось, они подожгли в Джеам 31 жилой дом, еще в 8 районах и 15 деревнях. Всего они подожгли в этом районе 317 домов.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жерт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крова, только в тот день достигло 1600 человек, а 39 человек погибли.

В Рокдонг в районе Хаман проживал человек по имени Джо Сонгын, который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одготовке к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Японцы поймали и расстреляли его. Семья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которые видели его смерть ради страны, тоже поднялись и пошли против японцев, восклицая «Ура!», их было 70 человек, их тоже расстреляли.

В горной местности в районе Мильян японцы захватили одну деревню, убили стариков и женщин,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Жестокости японцев не было предела. Об этом говорят следующие факты:

Когда японцы подвергали арестованного пытке, они раздевали его, потом заворачивали одну руку за голову, а другую через бок, выкручивая назад, привязывали за большие пальцы, подвешивали на железный крючок так, чтобы он висел вверх ногами. Через 3–4 минуты опускали вниз так, чтобы оба пальца упирались в землю, проходило время, арестованный потел, блевал или испражнялся. Японцы сидели рядом, кто-то из них читал книгу, играл в шахматы или даже засыпал.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кровь прилила к голове, язык вываливался и человек терял сознание, но японцы приглашали врача, чтобы арестованный пришел в себя, и продолжали пытки.

Было и такое, что арестованного ставили в деревянный ящик, дно которого было забито гвоздями, где он находился около 4–5 часов.

Раздевали арестованного догола и, начиная с головы до ног, или с ног до головы били его деревянным молотком с острым наконечником. Тело арестованного становилось багровым.

Если это было женщина, ее привязывали за волосы, так, чтобы ноги не доставали пола.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издевательства, борьб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одолжалась, потому что народ перенес много страданий и боли. Борьба продолжалась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и в сердце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невероятное чувство мести против оккупантов и каждый лично старал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родной страны.

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ил
Ге Хакрим (93 года),
сын Ге Бон У,
г. Кызылорда.

Источник: <https://koreans.kz/events/vospominaniya-otca.html?lang=ru>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РК приня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саммита КНДР и США

Правящая и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риня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КНДР и США. Документ был принят 25 февра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ошедшем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Мун Хи Сана.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лидеры парламентских фракций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Хон Ён Пхё, оппозиционных партий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На Гён Вон, Справедливое будущее Ким Гван Ён, Демократии и мира Чан Бён Ван. В заявл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деются на то, что предстоящий саммит в Ханое позволит внести решающий вклад в дело налаживания мира и достижени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арламентарии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тщ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результатами саммита, сохраняя готовность к дальнейшим действия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звития ситуации.

В РК проводят мероприятия к 100-летию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 случаю 100-летия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РК проводится масштабное 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100 лет Весны». Этот крупный фестиваль, предвещающий круглую дату, состоялся 28 февраля в Музе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Чхонан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известная певица, сопрано Чо Су Ми впервые исполнила новую песню к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е. Также был показан мюзикл на тему стремления к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концерте выступили певицы Ян Хи Ын, Хон Чжин Ён и другие. Телеканал KBS WORLD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 фестиваль на 120 стран.

ЕС изучает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ситуацию в КНДР

ЕС проводит в КНДР исследовани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каза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местному населению.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26 февраля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В докладе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та по оказанию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и гражданской защиты (ЕСНО) говорится, что сотрудники директората ведут сбор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 месте. В документе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 прогноз о возможной нехватке в КНДР риса, пшеницы, картофеля и другог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объёме 1,4 млн тонн. Ранее в ООН сообщалось о то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обратилось к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 призывом о помощи в обеспечении насел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С 1995 по январь 2019 года ЕС оказал Северу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на сумму в 135,7 млн евро.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уделяют внимание правам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тныне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его прав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адвоката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роме того, в случае дисциплинарного наказания исключ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мещения нарушителя на гауптвахту. Такие меры включены в общий план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по правам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период с 2019 по 2023 год. Особенность этого пла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о введении системы адвока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прав человека. Он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оказание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их прав, в том числе,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повторного ущерба пострадавшему в ходе следствия. Для этого в дивизии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по одному адвокату,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торых достигнет 100 человек. Кроме того,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заявили о планах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по искоренению практики принятия иррациональных решений на местном уровне, в том числе необоснованных личных приказ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Именно с этой целью из набора мер дисциплинарных взысканий будет исключено помещен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 гауптвахту. Вместо этого появились такие пункты как обучение воинской дисциплине и сокращение денежного довольствия. Также решено создать орган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предотвращением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армии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систему оценки уровня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армии.

(RKI)

Саммит США-КНДР в Ханое провалился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поводу ослабления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и ответных шагов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стали причиной провала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 Ханое. Об этом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заявил 28 февраля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общение было полезным и отношения с Кимом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ются хорошим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 многом готова идти по пути от-каз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НДР хотела ослабления санкций, однако они не были готовы идти сделать то, что мы хотели от них получить", - заявил Трамп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Ханое, комментируя главную при-чину неудачи саммита.

Трамп добавил, что они были готовы пойти на разно-го рода соглашения, н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е смогли прийти к компромиссу. "Иногда лучше просто встать и уйти. И я всегда готов к этому", - сказал Трамп. Он при этом доба-вил, что это не было расставание со скандалом. "Атмосфера все равно была хорошей. Это не было си-туацией, когда кто-то бросил все и ушел. Нет, мы пожа-ли друг другу руки и решили пока разойтись",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США, снова напомнив, что его отношения с Кимом остаются "хорошими" и "очень особыми".

В то же время Трамп не смог сказать, когда следует ожидать его следующей встречи с Кимом. "Я не могу это сказать сейчас. Это может быть весьма скоро, а может быть через долгое время", - пояснил он.

28 февраля, в день основ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Дональд Трамп и Ким Чен Ын не смогли прийти к приемлемому соглашению. Хотя с утра все выглядело так, что сторо-ны вполне 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но в ходе расширен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гд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ом числе и помощники лидеров, разногласия оказались непреодолимыми. В итоге обе стороны отменили совместный деловой обед и церемонию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й.

Напомним, второй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начался в Ханое 27 февраля. Мероприятия самми-та начались с переговоров с глазу на глаз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Они общались только в присут-ствии двух переводчиц. Общение с глазу на глаз надол-го не затянулось, и уже через двадцать минут Ким и Трамп пошли ужинать. К ним и переводчика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также по два помощника. С Трампом был госсек-ретарь Майкл Помпео и и.о.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Мик Малвейни. К Киму же подсел зам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им Ён Чхоль и глава МИД КНДР Ли Ён Хо.

Ожидалось, что на этом саммите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дпишут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укрепление мира в регионе и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прошла 12 ию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ингапуре. По ее итогам Трамп и Ким подписали совместную декларацию, но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ее раскритиковали за отсутствие конкретных ша-гов в плане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хенья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газеты РГ, автор – Олег Кириянов)
Фото: REUTERS/ Leah Mil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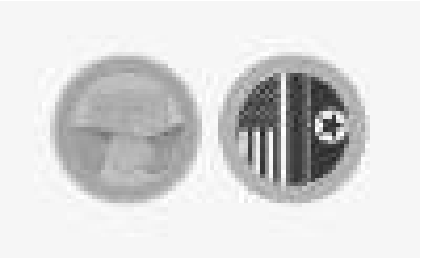
В США выпустили памятные монеты в честь встречи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ША выпустила памятные монеты-жетоны в честь в т о р о г о а м е р и к а н о -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открылся 27 февраля в Ханое.

В центре монеты на лицевой стороне изображена большая циф-ра "2", означающая второй саммит США-КНДР. По периметру написано "Новая дорога к миру" и "Особые времена требует отважного лидер-ства". Ниже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писано "один мир - три лидера". Тут же на английском пояснено, кто является третьим. Помим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 упомянут также 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за его вклад в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активную помощь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диалога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На оборотной стороне жетона изображен президентский дворец в Ханое, флаги США, КНДР и Южной Кореи, написано "Мирные перегово-ры - Вьетнам 2019". По периметру также есть надпись на английском - "Поворотный пункт к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по-корейски написано



"мирные переговоры".

Стоимость нынешней памятной монеты составляет 100 долларов США, она вышла ограниченным тиражом в тысячу экземпляров.

Олег Кириянов (Ханой, РГ)

В Японии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Пак Ёль: Анархист из колонии»

В Токио, Осака и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Японии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Пак Ёль: Анархист из колонии», ко-торый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обытиях, происходив-ших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изма в Ко-рее. Режиссёром ленты является Ли Чжун Ик. Главную роль исполнил Ли Чжэ Хун. В Японии фильм вышел под названием «Фумико Канеко и Пак Ёль».

Картина повествует об известном борц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ак Ёле и его возлюб-ленной Фумико Канеко.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январе, когда нача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о показе картины в Японии, некоторые местные ультра-пра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Одна-ко в день премьеры все билеты были распро-даны, благодаря интересу японцев к истории. Показ в Японии фильма о движени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 необычное явление

(KBS World)

В Бразилии растёт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Южной Америке растёт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 этой связи улучшаются прогнозы экспорта в этот регион сериалов, игр и других контентов. В Бразилии в эфире одной местной веща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транслир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о те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которая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зрителей. Ведёт эту программу местная кореянка Ким Ю На. В ходе часовой про-граммы, выходящей в эфир в конце недели, она знакомит зри-телей 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й 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60 л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РК и Бразилией. На этом фоне две страны реализу-ют различн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Профиль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успешно работающие в Мексике в сфере K-POP, приступили к изучению бразильского рынка контентов,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десятым в мире по объёму.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ё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мес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уд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об экспорте в Бразилию сериалов, игр и других контентов на сумму 17 млн 800 тыс. долларов. Дан-ный рынок вызыва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читывая, что доля мо-лодёжи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24 лет сред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16%

(KBS World)

IV рег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тартует на Сахалине

Масшта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с 1 по 5 марта 2019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и охватят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компетенций, площадок и участников,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 этот раз в чемпиона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268 конкурсант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еография площадок охватывает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остров от Охи 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ревноваться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будут в 47 компетенциях, большинство которых совпадают с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ьностям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новых 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фессий, требующих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ценивать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235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экспер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бласти,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е эксперты, готовившие участник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IV рег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ерию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практических и проектных семинаров, а также мастер-класс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чемпионата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Для справки:

IV рег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 это масшта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молодых рабочих в возрасте от 16 до 22 лет и юниор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4 – 16 лет,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молодежи и внедрению в систему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луч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актик.

Основной этап переукладк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тся к осени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ОАО «РЖД» Олега Белозёрова.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ход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строва и поставок на Сахалин нового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переуклад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рельсов -важнейши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Его реализация повысит удобство передвиж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ущественного увеличит товарооборот.

– Для Сахалина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этап – замена старой магистрали позволит нам вывести на маршруты новый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нарастить грузооборот и сделать пассажироперевозки комфортне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уководитель ОАО «РЖД» сообщил, что активная фаза работ, в ходе котор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завершить переукладку рельсов почти на 700 километрах, стартует 1 июня.

– Мы вплотную подходим к очень важному этапу по обновл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острове, – сказал Олег Белозёров. – Нам предстоит в сжатые сроки завершить перешивку основн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утей Сахалина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ую колею,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поставить новый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Переустройство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временным прекращением движения пассажирских и грузовых поездов. Пассажиров на время масштабных работ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 автомобильным и авиацио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вижение по вновь уложенной колее на участках Холмск – Арсентьевка и Корсаков – Арсентьевка – Ноглики откроется к 1 сентября.

Узкая колея – наследие сложной истории острова. По итогам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одов южная часть Сахалина оказалась под властью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Здесь была созда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сеть шириной колеи по японскому стандарту - 1067 миллиметров. В 1945 году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южная часть Сахалина, как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ернулась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Развитие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продолжилось. Но ширина колеи оставалась неизменной. Это повышало стоимость перевозок по острову.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для Сахалина приходилось изготавливать по особому проекту. А грузовые составы, прибывающие на остров паромной переправы Ванино – Холмск, и сегодня проходят дорогостоящую процедуру перестановки колесных пар.

Поэтапная перешивка остров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а ширину 1520 миллиметров началась в 2003 году.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также пол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пут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мостов и водопровод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прямление пути, увеличение площади поперечного сеч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е тоннелей.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перешивку дороги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0 году.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в турнире для любителе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стали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Открытые состязания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на реке Найб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ошли уже в восьмой раз. Сегодня на лед вышли 170 команд, возраст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 от 1 до 81 года.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стояли из двух этапов. Первый – командный, когда за отведенное время нужно было пойма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аваги размером не менее 19 сантиметров. Главный приз здесь – 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ервые победившие 50 команд поборолась за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на врем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бурить четыре лунки, а затем выловить в каждой по одной наваге.

– Посмотрите, какая сегодня стоит погода, какие люди собрались. Я успел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жителями Хабаровска, Камчатки, Приморья... Кому леску помочь распутать, кому пакет дать, кого морально поддержать,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Мария Климова. – Мы выловили 17 килограммов наваги, но я видела, что были уловы и по 30 килограммов. Главное – все-таки само участие, особенно если это рыбалка, и ты просто наслаждаешься таким праздничным досугом.

Пока рыбаки испытывали свое терпение перед лунками,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али музык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а между болельщиками проводились конкурсы. Самыми яркими активистками творческих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и команды «Пчелиная сила» и «Красивые», а самыми громкими и оригинальными – «Веселые пескарки».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третье место в командной игре заняла команда «Солнышки», второе – «Семидесятники», а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Мы».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в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стал участник из команды скорой помощ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Кононов.Он и унес со льда не только мешок с рыбой, но и солидный денежный приз – 100 тысяч рублей.

– Бежать было непросто. На третьей лунке испытал некоторые сложности, наверное, устал бурить. И тут мне просто повезло, – рассказал победитель. – В победу вообще не верится. Всей командой мы наловили килограммов 30 рыбы, за что коллегам отдельное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Соревн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островных властей, уже давно перестали быть областными. В праздник рыбацкого азарта участв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Москвы, Подмосковь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ахалински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глашают побороться за президентские гранты

До 15 март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от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и (НКО),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ъем поддержк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ставил около 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тысячи проектов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11 сахалин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пример, Углегорская местная казачь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таница Радонежская» выиграла грант –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общевойсковой полосы препятствий. Она необходим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тренировок будущих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подготовке к сдаче норм ГТО.

Конно-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Анива» получил окол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Возраст – не помех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енсионеры и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занятия по лечебной верховой езде и ухаживать за лошадьми.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проводи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и талантов; проекты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искусств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защита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не могут быть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ооперативы,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е и адвокатские палаты, микро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на победу не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те НКО, которые не по назнач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ли средства предыдущих грантов или предоставили на конкурс не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Чтобы побороться за президентские гранты, некоммерческим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у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Фонд заявку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Со всеми условиями можно подроб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Кроме

того, информацию о конкурс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7(495)150-42-22 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ffice@pgrants.ru.

В 2019 году пройдет два конкурса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ервый заканчивается 15 марта в 22:30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Второй конкурс стартует 10 июня и завершится 31 июля.

Жител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лучили безлимитный Интернет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запуск подводной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ой линии связи (ПВОЛС) «Сахалин –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кологии и транспорта Сергей Иванов,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стантин Носков,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зидент ПАО «Ростелеком» Михаил Осеевский.

Новая ПВОЛС, построенная компанией «Ростелеком», соедини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городами Курильск (остров Итуруп), Южно-Курильск (остров Кунашир), селами Крабозаводское и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остров Шикотан). Оптическая магистраль обеспечила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м доступом в Интернет жителей, бизнес и бюдже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Реализация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 это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для Южных Курил, – заявил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кологии и транспорта Сергей Иванов. – Подводная линия связи еще более прочно связывает их с Большой землей,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никновение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го Интернета на отдаленные, но наши, российские, острова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шае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делая доступными для него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услуг и технологий, включая телемедицину и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ергей Иванов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 главу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ранее поручил ускорить прокладку подводной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ой линии связи к островам. С этой задачей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в сложных сейсмических 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справилась компания «Ростелеком».

– Наше государство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у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сегодняшнее событие является еще одним тому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Что дает линия связи жителям Курил? Это быстрое оформление документов, это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и с врачам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в другом регионе, это доступ школьников к мировым базам знаний. Это надежная связь с близким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далеко. Это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отмет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ходе проекта «Ростелеком» проложил в сейсмоопасном районе со сложными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подводного оптического кабеля по дну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и множество наземных линий связи на Курилах, установил и смонтировал основн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 ПАО «Ростелеком» Михаил Осеевский. – Кроме того, мы полностью подготовили прибрежную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на островах: заменили старые сети в Курильск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 Крабозаводском на современные оптические. Курильская сеть связи надежно объединена с единой сетью связи страны.

У ж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ьше не ограничивать себя в объеме скачиваемой из Всемирной сети информации. Среди ставших доступными современных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услуг: скоростной безлимитный Интернет, «Интерактивное ТВ»,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и «Умный дом». Предприяти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пциям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Виртуальная АТС», «Виртуальный ЦОД», «Управляемый Wi-Fi».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2025 годы». Его стоимость составила 3,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з них 2,7 миллиарда – деньг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еще 0,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соб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Ростелекома». Кроме того, комп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инвестировала еще около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модернизац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вязи на островах Итуруп, Кунашир и Шикотан.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водной линии связи началось в июне 2018 года.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линии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815 километров.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 40 Гбит/с на каждом из указ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 возможностью расширения до максимальной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 8 Тбит/с.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대구시, 사할린 동포들에게 고국의 정 듬북

2월 24일 그랜드호텔, '사할린의 밤' 행사 개최

대구시는 24일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이하 '청년회', 회장 하태균)와 함께 광복 74주년, 한·러 수교 29주년을 맞아 네 번째 '사할린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구시는 청년회와 러시아 사할린 주한인회 임원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2백여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사할린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행사는 먼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하여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리고 평양민속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사할린과의 교류협력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감사장 및 방문 기념품 전달, 사할린 동포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시와 청년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사할린을 방문하여 '대구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장학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대구시의 위상을 높이고, 상호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해왔다. 오는 8월에도 사할린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할린경제법률대학교의 자매결연 체결(2009년), 사할린 경제법률대학교 학생 초청 대구문화체험(2010년~2011년), 블라디미르 네벨스크 시장 대구 방문(2014년) 등 이밖에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



▲ 지난 2017년 행사사진 2019.02.24. (사진: 대구시청)

으로 교류하며 각별한 관계로 발전해왔다.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과 애환을 함께 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매거진)

한국요리

파전



비 오는 날의 술안주로 부침개만한 것이 또 있을까.

그 중 파전은 파의 향긋한 맛과 두툽한 반죽 속에 든 해물의 다양한 맛이 곁들여져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메뉴이기도 하다.

파전은 부산 동래파전이 유명한데 그 지방의 파가 유난히 맛있어서다.

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잘라 훌훌 섞어도 되지만 길게 잘라 쪽쪽 잘라 먹는 맛이 색다르다.

▶ 재료

재료 : 실파 200g, 물오징어 100g, 조갯살 50g, 새우 살 50g, 달걀 1개, 붉은 고추 1개, 식용유. 밀가루 100cc 씩.

#파전 반죽 재료 : 찹쌀가루 100cc, 뽕쌀가루 100cc, 밀가루 100cc, 소금 2t, 멸치육수 200cc.

#양념장 재료 : 송송 썬 실파 3T, 다진 마늘 1/2T, 깨소금 1/2T, 고춧가루 1t, 진간장 2T, 식초 1T, 설탕 1/2T, 물 3T.

▶ 만드는 법

1. 실파는 깨끗이 다듬어 씻어 8~9cm 길이로 자른다. 단단하고 두꺼운 머리 부분은 칼등으로 두드려 편다.



2. 오징어는 깨끗이 씻어 손질하여 4cm 길이의 채로 썬다. 붉은 고추도 어슷썰기 해놓는다.

3. 파전 반죽을 합하여 분량의 물을 넣고 고루 푼다.

4. 썬 실파는 머리가 엇갈리게 만들어 날 밀가루를 묻혀 탁탁 털어 준비한다.

5. 가루 밀가루를 묻힌 파를 파전 반죽에 담가 반죽을 묻힌다.

6. 잘 달구어진 팬에 식용유를 듬뿍 넣고 준비한 실파를 파전 반죽에 담갔다가 꺼내 팬에 알파하게 편 다음 뚜껑을 덮어 앞뒤로 잘 지진다.

준비한 해물을 그릇에 담아 있는 파전 반죽에 버무려 잘 지진 파전 위에 얹고 달걀과 붉은 고추를 얹어 잘 익게 지져낸다. 분량의 양념을 합하여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여 낸다.



▶ 팁

*파전을 만들 때 반죽이 너무 되거나 두꺼우면 잘 익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파를 얹을 때는 반드시 날 밀가루를 먼저 묻혀야 반죽이 고루 잘 붙고 지진 후에 부침옷이 벗겨지지 않는다.

*해물을 얹을 때도 남은 반죽에 잘 버무려 얹어야 잘 붙는다.

*반죽이 두툽하면 뚜껑을 덮어 은근히 익혀야 속까지 고루 잘 익는다.

*찹쌀가루와 뽕쌀가루를 구하기 어려우면 시판용 부침가루로 사용해도 된다. 이때는 가루에 간이 되어 있으므로 따로 간을 하지 않는다.

쪽파가 맛있는 동래에서 유래한 해물파전은 넉넉한 파와 해물로 두툽하게 부쳐야 제 맛이다. 그냥 생수로 해도 되지만 멸치육수로 반죽을 하면 훨씬 맛있다. (코리안넷)

[우리말로 깨닫다]

왜 이렇게 급한가?

‘급(急)하다’라는 말은 좀 재미있는 말입니다. 한자 ‘급’에 ‘하다’가 붙어서 생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1음절 한자어에 하다가 붙는 예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휘를 통해 한자가 우리 속에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후(厚)하다/박(薄)하다, 강하다/약하다, 망하다/흥하다’처럼 반의어가 나타나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급하다’의 경우는 ‘완하다’가 없다는 점에서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의 반대는 ‘느긋하다’나 ‘천천히 하다’ 정도일 겁니다. 완하다는 없이 급하다만 한자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급한 상황이 훨씬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빨리빨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은 느긋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쉬면서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머리로 몸도 쉬어야 빈 공간이 생기고 글과 생각이 맑아집니다. 여유라는 말은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숨을 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걱정은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초조(焦燥)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초조는 불에 그을리고 모두 말라버린 것 같은 느낌의 단어입니다. 급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노심초사(勞心焦思)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괜히 걱정만 한 셈이지요. 물론 걱정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실수를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나친 걱정이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급한 일은 보통 미루어 두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미리 차근차근 하지 않았기에 앞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일을 하지 않으려면 미루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루지 않아야 급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일은 어제,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일을 계속 급습을 필요도 없고,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두고, 오지 않을 미래를 믿지 말고, 산 현재에 활동하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를 하고 나거나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비슷한 실수나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은 사람을 단단하게도 하지만 약해지게도 합니다. 조금 더 담대해 질 수도 있을 텐데 걱정이 한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오늘 일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떠오르고, 덩달아 걱정거리가 되어 남습니다. 아직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까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복잡할 수밖에요. 답답한 일입니다.

그 때 제 머릿속과 가슴속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가?, 뭐가 그리 급한가?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어쩔 줄 몰라 하는가? 내일 일은 내일 다시 하고, 오늘을 기쁘게 맞이하면 되는데 왜 이리 힘들어 하는가?' 내가 급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루를 고마워하며 재미있게 지내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노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웃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타박을 하면서 힘들면 내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오늘 일도 정말 힘들면 내일로 미루어 두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종종 오늘의 할 일도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 좋아 보이네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민, 대형 아파트를 꿈꾼다

사할린 주민들은 대형 아파트를 원한다. 극동 지역 11개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사회여론 조사에서 사할린 주민들은 대형 아파트 수의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부랴찌야 주민들은 가장 적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 입방체> 사회혁신센터의 조사부 드미트리 폴로조브 부장에 따르면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에 1만 4000명에 응답했다. 인구가 50만 명이 넘지 않는 지역에서 <행복을 위한 주택으로 몇 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한가?>란 질문에 주민들 각 1000 명씩 응답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500명씩 응답했다.

설문조사 시 극동지역 주민들은 평균 91.4 m²의 주택을 갖길 원한다고 밝혀졌다. 가장 대중적으로는 50 m² - 150m² 까지라고 응답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평균 주택 면적은 105 m² 이고, 마가단주·아무르주·추 코트카자치구·프리모리예변경과 캄차트카주에서는 90m² 이상의 주택을 원했고, 사하공화국을 비롯한 자바이칼리예와 하바롭스크변경의 주민들은 90m² 이하로 나타났다. 유테인자치구에서는

79m², 부랴찌야공화국에서는 74m²를 받고 있다.

Сахалинцы мечтают о больших квартирах

Сахалинцы мечтают о больших квартирах. Соцопрос, который провели в 11 субъект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казал, что самые высокие запросы на количество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менно у островитян, а самые скромные – у жителей Бурятии.

Как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аналитики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ых инноваций «Черный куб» Дмитрий Полозов, опрос проводили с 23 января по 12 февра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еспондентами стали 14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регионах,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х не превышает полмиллиона, на вопрос «Сколько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ам нужно для счастья?» отвечали по 1000 жителей, в остальных – 1500.

В ходе опрос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в средн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ам хочется иметь 91,4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а жилья.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были ответы в пределах от 50 до 15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в среднем хотят жилплощадь в 105 «квадратов», более 90 «квадратов» — в Магаданской,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ях, Чукот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Приморском и Камчатском краях. Запросы среднего жител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а также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не превышают 9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Еврей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обрадуются 79 «квадратам», а в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 всего 74.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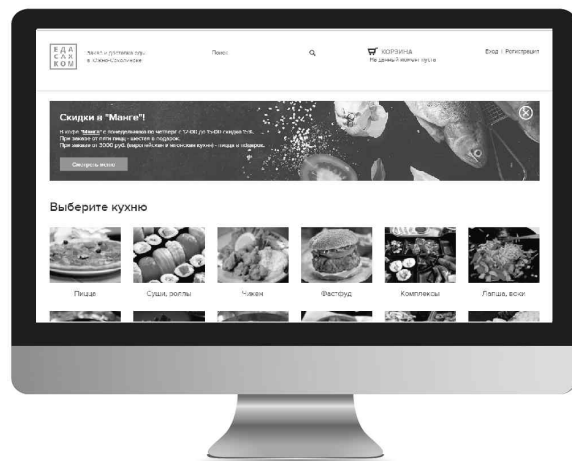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